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7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재성수하단);
 말운론
 五.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은인가!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2) 영모님의 사명은 다 끝이 났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했어. 그래서 이 할미가 이 모든 살림을 며느리에게 맡길려고 해”라고 영모님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영모님은 당신의 사명이 다 끝이 났으니 당신이 출현시킨 구세주에게 모든 하늘의 일을 인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영모님의 시대는 끝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런데도 전도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전도관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제는 설교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다. 오늘이 완전히 아는 지식에서 졸업식이다.”(81.12.28.신앙신보)

영모님이 이제는 설교를 하실 필요가 없고 또한 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아는 지식에서 졸업이라는 말씀은 영모님이 전도관 교인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모님의 말씀을 잘 알아 새겨서 구세주에게로 가서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어야 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아듣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씀은 빨리 구세주에게로 가라는 말씀이다. “5리를 가면 그 곳에 옛장수 집이 있다

고 하자. 그 집을 조금 지나면 한 5리를 돌아갈 고개가 있는 것이다. 그 고개를 5리를 넘어간 사람에게 그 다음에 강을 배를 타고 건너고 그 다음에 길가는 길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다리도 건너지 않고 돌아서서 돌아오든지 다리를 건너지 아니하고 멍하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가르쳐 줄 말이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없는 것이다.”(81.11.23.신앙신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5수는 구세주의 수이다. 그러므로 여기 영모님 말씀에서 5리, 5리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세주에게로 가라는 말씀이다.

주해:1) '5리를 가면 옛장수 집이 있다' 라는 말씀은 5수는 구세주의 수이고 옛장수는 구세주를 말씀하신 것이다. 옛장수도 달고 오묘한 영생의 말씀을 해주시는 구세주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5리라고 표현하신 것은 첫번째 구세주이신 영모님을 말한 것이다.

주해:2) '그 집을 조금 지나면 5리를 돌아갈 고개가 있다'라는 말씀은 두번째로 출현한 구세주인 해외간자(간자)를 만나 따라가면 먼저 약간의 어려운 고개가 있다는 뜻이다.

주해:3) '그 고개를 5리를 넘어간 사람에게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5수에 십을 곱한 50수는 구세주의 수인 5수에 십승(十勝) 즉 이기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구세주는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박태선 장로님 생일축하 행사(왼쪽 2번째 박태선, 오른쪽 2번째 최옥순 박 장로님 부인)

이다. 그러나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을 가려서 '50리' 라고 표현한 것이다.

주해:4) 그리고 '5리를 넘어간 사람에게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에게 다음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은 승리하신 하나님(50)에게로 가서 그 분에게 모든 전체를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강을 건너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시다.

배를 탄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배에 맡겨야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간다는 표현은 모든 것을 구세주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영모님은 모든 것을 맡기고 구세주를 따라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구세주를 만나고서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생명 강에서

멍하니 서서 바라만 보면서 구경만 하던가 다시 세상줄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고 하였다.

어떻든 이 말씀은 빨리 구세주를 찾아가서 전체를 맡기고 따라가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따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四. 嗚呼悲哉 聖壽何短(오호비재성수하단) ; 오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은고!

1) 구세주의 길을 평탄케 하신 영모님 (사 40:3)

“소리있어 외쳐 가라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아시아의 예언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를 증거한 예언이 아니라 참 구세주의 길을 소사에서 예비하러 오신 박태선님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기술하였다.

「]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박태선 영모님이 광야에서 외치신 40년간은(40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함)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또는 전도관에서 3개 신앙촌에서 하늘의 엄청난 역사를 하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아시아의 예언인 광야의 외치는 소리였다. 이 광야의 외치는 소리는 구세주를 찾아 출현시키시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외침의 소리였다.

「]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사막(沙漠)은 흰 모래밭인 소사(素沙)를 말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서에 나오는 계룡백석(鷄籠白石)과 성경에 나오는 흰 돌(묵2:17)이 소사를 말하는 것임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소사인 흰 모래밭에서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다시 찾으시는 구세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서에는 천봉지탁소사탑(天崩地塌沙石塔)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 말씀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사에서 다시 건설하신다는 예언인 것이다. 이와같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사에서 다시 건설하실 구세주가 소사에서 출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박태선님에게 사막

인 흰 모래밭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소사 땅에서 대로(큰길)를 닦고 장애물이 없도록 미리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라고 한 것이다.

아시아를 통하여 예언된 영모님의 이와 같은 사명은 이미 다 끝이 났다고 선포하셨다. “이제 이 할미가 할 일을 다 끝냈어. 그래서 모든 살림을 며느리에게 맡기려고 해”라고 하신 것이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박태선님은 파란만장(波瀾萬丈)한 광야 생활을 다 끝내셨다. 승리자에게 바치는 승리제단을 당신의 해산의 수고 끝에 낳아서 키워 세우신 아들 구세주 조희성님에게 주면서 소사 역곡에 세우라고 자상하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죄의 뿌리인 원죄까지 뽑아주는 그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 엄마에게로 가서 죄 씻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위 기록을 참조)

그리고 이 때에 영모님은 최사모님에게 돌연 은행 통장을 주시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다. 그 통장에는 약 4억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사모님은 내가 이 돈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서 안 받았다. 그러나 영모님은 그래도 보관을 하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한사코 받으라고 하셨다. 그래도 최사모님은 안 받았다고 한다. 지금 와서는 두고 두고 후회를 하고 있다. 영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아시고 최사모님에게 예비하도록 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격양유록 新 해설
제82회

하늘소(정도령)가 영적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면
영생의 길 또한 알 수 없느니라

鷄龍歌(계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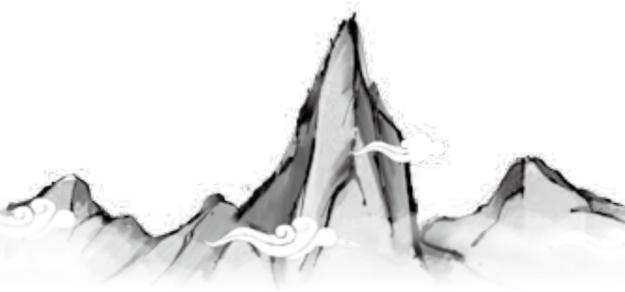
鷄龍石白非公州계룡석백비공주요
平沙之間眞公州眞公州眞公州眞公州
靈鷄之鳥知時鳥영계지조지시조요
火龍變化無雙龍화용변화무쌍용을
鷄石白聖山地계석백성산지니
非山非野白沙間비산비야백사간
弓弓十勝眞人處궁궁십승진인처라
公州鷄龍不避處공주계룡불피처니
此時何時지시하시야요
山不近山불근에 轉白死전백사니
入山修道下山時입산수도하산시라

계룡석백(鷄龍石白)은 충청도 공주 계룡산을 말함이 아니요 부평 소사 사이의 진짜 공주(眞公州眞公州=계룡 정도령)를 말함이나. 영적인 닭인 금구조(金鳩鳥)는 때를 아는 새로 화룡(火龍 진시성인)은 변화무쌍한 용이나. 계룡석백은 성인 정도령이 계신 곳이니 비산비야(非山非野) 즉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백사(白沙)인 소사간(素砂間)이 궁궁십승진인(弓弓十勝眞人)이 계신 곳이라. 충청도에 있는 공주 계룡산은 피란처가 아니니라. 이 때는 어느 때인가? 산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하는 때라. 입산(入山=白의 파자)하면 죽으니 입산수도(入山修道)하는 사람들아! 지금은 하산(下山)할 때이니라.

寺齋歌(사당가)

寺齋七斗天農사당칠두천농이니
是呼農夫시호농부때만난네
水源長遠天農수원장원천천농에
天牛耕田田天農경전전전일세
文武星문무성명이요
天上水源靈田천상수원령전이라
理氣妙理心靈이김묘리심각하니
寺齋七斗사당칠두이아닌가
天牛不知靈田천우부지령천농이면
永生之路又不知영생지로우부지라

사당칠두(寺齋七斗=복두칠성)는 하늘의 농사(天農천농)이니 농부(정도령)가 때를 만났네. 생명수의 근원이 아주 먼 하늘의 심승 농사는 하늘소(天牛=하나님)가 밭(田田=陽田, 陰田)을 가는 것일세. 문무성(文武星 복두칠성)을 이름이요 천상의 생명수를 근원으로 하는 영적인 밭이니라. 이(理)와 기(氣)의 묘한 이치를 마음 깊이 깨달으니 사당칠두(寺齋七斗)가 바로 이기(理氣)로 짓는 농사 아닌가? 하늘소가 영적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면 영생의 길 또한 알 수 없느니라.



鷄鳴聲(계명성)

三鳥之聲삼조시성들려온다
집개에서 役事역사하세
鳥鳴聲數聲조영성시삭성에
일할생똥생각 각情정이라
玄武鳥初聲時현무조초성시에
鳥頭白조두백이 未容髮미용발이요
靑龍鳥再鳴聲조재명하세
江山留支壯觀江山유지장관이요
朱雀之鳥三鳴주조삼차명
昏衢長夜開東來 혼구장개동래라
鷄鳴無時未久開東계명무시미구개동
日竿三일간삼이다되네

새(닭)우는 소리가 세 번 들려오느니라. 잠 깨어서 하늘의 일(천지 공사)을 하세. 닭 우는 소리가 자주자주 들리니 일할 생각 격정이라. 첫 번째 우는 현무조(玄武

鳥)는 머리에 털이 나지 않았음으로 즉 계유(癸酉=현무조 1933년)년에는 일제 암흑기로서 새로운 진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청룡조(靑龍鳥=을유 1945년)가 울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유지하니 장관이로다. 세 번째 주작지조(朱雀之鳥=정유 1957년)가 우니 어둠과 두려운 가나긴 밤이 지나가고 동녘이 밝아오느니라. 닭 울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니 오래지 않아 동방 나라 한국 땅이 밝아 와서 해가 거의 세 발 장대 위(日竿三일간삼)에 떠오르네.

夢覺時몽각시라 人民들이
農事농사를 不失부실하니
日語일어저저 田耕전경하고
英學영학하게 播種파종하고
支學지학하게 除草제초하야

霜雪時상설시에 秋收추수하소
馬枋兒只마방아지나오신다
蔑視蔑시말고 잘모시어라.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니 백성들이 농사짓는 때를 놓치면 아니되니라. 일어(日語)로 밭을 갈고(세상 사람들이 일어 공부를 많이 하는 때는 밭가는 시기로 본다.) 영어 공부하는 것으로 씨를 뿌려 심고(세상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데 힘쓰는 시기를 영적으로 파종하는 시기이다.) 중국어 공부하는 것으로 제초하여(세상

사람들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때를 제초하는 것으로 본다.) 서리나 눈이 내릴 즈음(霜降상강-小雪소설)에 알곡을 추수하소. 상강(霜降)-소설(小雪)은 술(戌)해(亥)에 들어있다(戌亥人多死). 서리 내리기 바로 전에 추수하는 법이다(申酉兵事起). 마방아지(馬枋兒只=마구간 아기) 즉 구세주 정도령이 나오신다. 멸시(蔑視) 말고 잘 모시어라. 신유(申酉)에 금(金)의 기운이 들어와서 추수를 하고 술해(戌亥)에 속살지기로 다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다. 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은 술(戌)에 있고 눈(雪)은 해(亥=입동 소설)에 내린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